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파악을 통한 자료 활용 방안

– 주요 해외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이 난 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및 유출 배경 연구의 필요성
1. 구한말 당시 우리문화재 유출배경의 대표적 유형

Ⅲ. 한국문화재 소장 주요 국가의 현황과 그 특색
1. 미국 소재 한국문화재
2.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3. 러시아 소재 한국문화재

Ⅳ.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방안

Ⅴ. 맺음말

국문 요약

최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는 종래의 관련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가 높으며 그 범위도 국내에 한정치 않고,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그 활용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모두가 환수대상이라는 종래의 개념 이외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단계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유출경위 등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이자 기본요지이다.

또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좀 더 확장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문화재는 원래 생산국인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세계유산이라는 접근을 통해 그 활용의 폭도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하여 미국 보스톤박물관 등 3개국의 대표적인 주요소장처의 한국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와 성격, 그리고 유출배경의 유형을 살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향후에도 국외 한국문화재의 현지조사를 통해 유출배경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는 물론 환수대상 혹은 홍보대상 등을 구분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응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자료를 규명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주제어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세계문화유산, 외국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체계적 현지조사, 환수 및 활용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에 소재한 한국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그 연구는 1993년 9월 한·불 정상회담 이후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이 국제적 정치 이슈로 떠올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부터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1)]

또한 최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이 크게 신장되면서 국내외 박물관을 찾는 일반인의 참여와 관련연구자가 늘어 우리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그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속속 개진,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문화유산을 매체로 한 유네스코의 코스모폴리탄 개념도 한 몫을 하여, 이른바 인류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악, 보호,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2)] 함께 우리나라도 석굴암, 판소리, 종묘제례, 훈민정음 등 다양한 장르의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시각의 입장에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도 환수대상이라는 종래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바라본다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는 원래의 생산국인 우리 소유의 고유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세계유산이라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외에 소재한 우리문화재는 곧 환수대상이라는 일반적 관념과 불법문화재의 소유권 양도문제 등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의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배경이다.

또한 실용적 접근에 있어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지 소장처 중심의 체계적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조사 연구된 자료의 공유와 활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85년부터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국립파리도서관 소장의 외규장각 자료도 파악되어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목록집에 소개된 바 있다. 이후 외규장각 자료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반환·요청하는 바탕에는 서울대 규장각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 2006년 언론에는 한국에서 외규장각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내용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거론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

2) 이러한 노력은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e and Natural Heritage"를 바탕으로 1975년 공표된 국제법에 의해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출발된 국외 한국문화재의 현지조사를 통해 유출배경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는 물론, 환수대상 혹은 홍보대상 등을 구분하여 앞으로의 정책기초 자료 등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자료를 규명하자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최근까지 75,000여 점으로 추정 집계되었는데,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20여 개 국가의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개인 등에 소장 또는 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등 한국실이 설치된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35,000여 점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집 및 조사된 자료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최근까지의 국외소재문화재 현황과 유출배경을 나누어 살피되, 우선 미국 · 일본 · 러시아 3개국의 대표적인 주요박물관의 소장처를 요약 정리하였다. 특히 우리문화재의 주요 소장국인 일본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 6개국의 주요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조사한 내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도록집 형태의 보고서로 간행된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말한 보고서에 근간을 두고 국가별 소장처별 현지 조사된 국외소재 유물자료를 고고 · 미술 · 민속 분야별로 일차 분류하여 그룹화한 뒤 재질별로 개별유물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 유물의 편년과 양식 등 학문적 규명을 시도하였다.

둘째, 유물 유출 당시 각국과의 인적교류와 국가 간 대외교섭 등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역사 문헌자료 등을 통해 우리 문화재 유출배경의 안팎을 파악하고자 하였다.[3] 이것은 결국 소장처별 우리문화재의 소장경위를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의 외국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특별전 도록 및 관련 연구성과, 그리고 환수관련 정책자료와 불법문화재 관련 유네스코 세미나 자료집 등 국내외 자료를 폭넓게 수집 · 분석하여, 단순한 문화재 학술논문이 아닌 관련분야 및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꾀하고 소장처의 박물관 정보까지 담아 실용적인 접근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국가 및 범국민차원의 해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등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및 유출배경 연구의 필요성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는 최근까지 75,000여 점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20여 개 국가의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개인 등에 소장 또는 소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1〉.

표 1. 국가별 한국문화재 소장 현황[4)]

소 장 국	수량(단위:점)	주 요 소 장 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 시 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 랑 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 마 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 나 다	1,080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네 덜 란 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 웨 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 스 트 리 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 티 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 위 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 란 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 기 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형 가 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 탈 리 아	17	聖천사의 城 박물관
계	74,434	

20개국에 74,434점이 소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재의 개별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출배경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문화재를 많이 유출시킨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멀리 임진왜란부터 근·현대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일어난 병인양요·신미양요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전쟁을 전후한

4) 위의 표는 국내외에 알려진 자료를 취합·정리한 통계로, 현지에서 실사(實査)된 자료는 아니다.

미군정기(美軍政期)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사건을 겪었다. 따라서 이들 유출문화재의 사안별 접근은 학문적 규명을 통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최근 유네스코 등의 국제적 회의를 통해 제3세계에서의 문화재 반환과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993년 이래 프랑스와 벌어진 외규장각 의궤(儀軌) 반환과 맞물려 문화재 반환은 단순히 관련부처와 학계만의 일이 아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이다. 이런 환수의 열기는 외규장각 고서들에 머물지 않고 해외소재 문화재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유출경위 파악이 시급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우리문화재 소장국을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정도로 명확한 유출경위가 우리에게 확보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또 한편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환수를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처럼 현지 소장국에 그대로 두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사안별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종합적 축척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5]

시간이 갈수록 국가의 경쟁력은 문화에 있고 이들 근간을 이루었던 문화재의 비중은 높아갈 것이다. 특히 자국을 떠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은 한층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며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적 추이를 반영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그 유출경위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준비가 필수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국가기관 중심의 학술분야별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단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6]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정보가 비교적 풍부해져 이 분야의 일반인 관심과 더불어 관련 조사·연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7]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파악을 위해 1985년 관련 목록집 간행을 시작으로 이후 체계적 현지 학술조사를 위해 2002년부터 10개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해외박물관 중 주요소장처를 중심으로 일본·미국 등 6개국 소장

---

5) 유일하게도 국외소재 문화재 가운데 한-불간 정치·경제적 현안과 국민적 관심으로 인한 반환의 필요성에 의해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의 외규장각 [의궤(儀軌)] 연구는 유출배경과 그 개별적 가치 그리고 관련 국제법까지 심층적으로 연구된 상태이다.

6) 현황파악 자료로 외국박물관 한국실 설치로 한국국제교류재단 간행의 일본·미국·유럽지역별 소장처별 8권의 책자와 해외전적조사연구회가 미국·일본·프랑스 3개국 소장 한국 전적문화재 6,500여종을 조사하여 책자로 간행하였으며 이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의 정보를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 중에 있는 정도로 전체를 통합 조정하여 이를 환수 및 활용방안과 연계된 시스템은 부재이다.

7) 개인의 관련 연구성과로는 이보아, 2002, 『문화재약탈과 반환의 역사(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와 조부근, 2005, 『잃어버린 우리문화재를 찾아』, 민속원 등이 있다.

한국문화재 8,200여 점을 조사하였다.

필자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을 담당하였는데, 현지 학술조사에 참여하면서 유물들의 문화재적 성격 등 개별적 학술적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 소장처 큐레이터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교류함으로서 유물들의 소장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 유물의 유출배경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문화재의 해외 유출은 일제강점기, 6.25전쟁과 같이 사회적 혼란기나 어두웠던 역사적 환경 아래에서 열강에게 약탈당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외의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선시대 말에서 구한말에 걸치는 시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자국을 대표하는 관료로서 혹은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다양한 신분의 외국인이 개인적 관심사로 미술품을 수집하여 귀국 시 동반하여 가져간 경우가 있고, 또 조선시대 말 미국과 유럽 등 각국과 체결했던 조·미 수호조약, 조·아(俄, 러시아) 통상조약 등을 계기로 정치·외교사적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교류의 측면으로 우리문화재가 해외에 건너가게 되기도 하였다.

다음에는 이 세 가지 경우, 다시 말해서 열강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 개인의 기호에 따른 수집, 그리고 국가 간 우호의 증표로서 기증된 문화재 등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구한말 당시 우리문화재 유출배경의 대표적 유형

(1) 열강에 의해 약탈된 우리문화재

19세기 조선의 국제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은 전통적인 사대교린의 조공(朝貢)무역 상태로 지극히 수동적이었다. 반면에 서구 유럽과 미국은 세계팽창 정책에 입각하여 식민지 획득을 위한 아시아 진출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대외적 국제관과 내적 통치철학의 사대질서 입장에서는 서구의 공법(公法)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8)]

불행한 것은 이런 국가적 충돌로 빚어진 전란으로 인한 혼돈은 곧 우리문화재가 전리품 혹은 약탈품으로 우리 땅을 벗어나기 시작한 역사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와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의 양 전란시 프랑스와 미국 해군의 전리품으로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 [의궤(儀軌)]와 광성진(廣城鎭)에 세워졌던 군기(軍旗) 등이 각각 프랑스와 미국에 유출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여기에 1894년 청일전쟁

8) 당시의 상황을 외교사 측면에서 서구 중심의 공법질서 파괴로 보고 살핀 내용으로 관련책자로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고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의한 우리문화재 대량 유출은 우리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유출 쓰나미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이다.

당시 서구열강의 입장에서 볼 때 점령국에 들어가 전리품을 챙기고 혹은 문화재를 약탈할 수 있는 당위성은 일찍이 제국주의 사관(史觀)에 입각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문화적 야만 행위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행되었다. 여기에 미국은 전통적 포함외교(砲艦外交)에 의해 1871년 조선 개항을 목적으로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J.)에 해군함대를 동원, 셔먼호사건에 대한 응징보복 원정을 결행하게 됨에 따라 신미양요의 전란을 겪게 되었다.

미국에 의해 일어난 신미양요 당시 미 해군은 전리품으로 강화도에 꽂혀있던 수자기(帥字旗) 등 군기(軍旗)와 대포 및 소총을 노획해 갔다. 당시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군기 50개, 대포 및 소총 481문 등을 약탈하였다〈사진 1〉.[9] 이처럼 초기 조·미의 정치·외교사적 관계 수립 이전의 비외교적이고 불안정한 교섭은 우리문화재가 우리 땅을 떠날 수 있던 역사배경의 한 예가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이 외교적 목적을 위한 일부의 과정에서 우리문화재를 약탈한 것에 비해 달리 일본은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약탈과 그 유출에 관한한 국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해 나갔다.[10]

일본에 의한 우리문화재 약탈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후였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 일확천금의 꿈을 현실화시키고자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 골동상(骨董商)들은 일본 내의 수요자를 확보하여 판로(販路)가 보장된 상태였기에 더욱 더 유출을 자행하였다. 그 뒤 1910년부터 35년 간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정치인·상인·여행객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볼려와 고분 등 각종 문화유산을

사진 1. 미국 아나폴리스(Annapolis) 해군사관학교 박물관(U.S. Naval Academy Museum) 내 신미양요 자료 전시상태

9) 관련내용은 「신시내티 데일리 인콰이어러(THE CINCINNATI DAILY ENQUIRE)」 1871년 6월 29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일본의 우리문화재의 침탈의 역사는 인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본 발표문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정하고자 한다.

도굴하고 문화재를 반출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이토 히로부미 통감 재임을 전후한 시기에 조직적으로 고적 ·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고서와 회화를 수집 · 약탈, 그리고 반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노(官奴)와 관민(官民)을 움직여 개성 일대 고분들에 대한 집중 도굴로 고려청자 탈취가 절정을 이룬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1]

이후 일제강점기 기간 내내 고고자료, 미술 및 민속품, 불교관련 유물 등 다양한 종류의 각종 문화유산이 약탈 · 기증 · 선물 · 매매 · 밀반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에 유출된 까닭에 일본은 오늘날 우리문화재 최다 보유국이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도 일본은 과거 인적교류 및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발휘하여 국내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꾸준히 우리문화재를 유출시켜 나갔으며 또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문화재가 그대로 일본에 머물지 않고 미국 등에 흩어져 나가는 전초적인 역할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 개인의 권위상징 및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우리문화재 수집 열풍

무력충돌에 의한 전리품 성격으로 노획해간 유출배경과는 달리 우리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취미의 감식안으로, 혹은 학문적 대상으로 우리문화재를 수집 · 유출시킨 또 다른 사례들이 있다. 여기에 당시 조선왕실 주변에 있던 외교관, 의사 등이 고종과 왕비로부터 하사된 미술품을 모국으로 가져가 자국에 기증함에 따라 오늘날 공공박물관에 전시된 경우도 많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몹시 부족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 각국에는 때마침 근대자본주의에 의한 부를 축척한 호사가(好事家)들이 문화재를 '자본의 상징(Symbolic Capital)'인 양 앞 다투어 문화재를 소유하면서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유행하였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축척된 부를 이용하여 최상급의 고려청자를 구입해간 경우로 미국인 찰스 베인 호이트(Charles Bain Hoyt)를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프랑스의 콜렝 드 플랑슈(Collin de Planchy)와 카를 이바노 비치 웨베르(Weaber, Karl Ivanovich) 등 구한말에 조선에 파견된 공사(公使)로서 하사품인 도자기와 기록물 등을 본국에 동반해 가져간 외교관들이 있다.

세 번째, 프랑스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과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 그리고 미국의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와 스튜어트 큘린(Stewart

11) 이구열, 1987, 「제2장 일제사의 수난사」,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Culin)과 같은 학자들은 서지학과 인류학의 관련분야의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서책과 각종 민속품을 구입해 간 경우의 대표격 인물들이다.[12]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도 1960년대~1970년대에 미국으로 유출된 예도 있다. 1963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 군속(軍屬)과 문정관(文政官) 등이 외교행랑을 통해 자국으로 반출한 행태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예를 들어 1959년~1963년 주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했던 핸더슨(Gregory Henderson)은 1962년 각종 도자기 143점 등을 수집하여 자국으로 가져갔으며, 이 유물들은 현재 하버드대학의 새클러 박물관(Arthur M. Sackler Museum, Harvard University)에서 매입하여 전시 중에 있다. 그 밖에 파우치 등과 민간인을 통해 유출된 유물들도 적잖게 있다.

(3) 조선의 공식적 외교활동 등을 통한 문화교류로서 전해진 예

조선은 1882년 한·미 수호조약 체결 이후 서구열강들과 교류를 공식화함으로서 종래 과거 전통적인 조·청, 조·일 간의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새로운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개진하였다. 그 중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박람회의 참여 등에 따라 당시의 조선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공식적으로 외국에 건너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실제 오늘날까지 각종 유물이 전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그 첫 예로는 한·미 수교 직후인 1883년 9월, 조선 정부가 견미사절단(遣美使節團)인 조선보빙사(朝鮮報聘使)를 미국에 파견,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의 참관함에 따라 그곳에 보내진 도자기·화병 등 몇 가지 표본 상품이 출품된 사실이 기록으로 전한다.[13] 이 때 출품된 유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현재 어렵지만, 공식적 외교루트를 통해 전해진 첫 예로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 무렵 외교 사절단 중 일행인 종사관 유길준(俞吉濬)은 미국에서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동부 세일럼 피바디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유학생 신분으로서 그가 입고 있던 복식과 소지품 일체를 피바디 에섹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에 기증하였다. 따라서 이들 유품은 오늘날 우리의 근대역사와 함께 기념비적으로 동 박물관의 주요 한국 문화재로 자리매김 되어 국내외에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

---

12)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가 수집한 민속품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스튜어트 쿨린(Stewart Culin)이 수집된 유물은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13)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 등의 일행이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의 도움으로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던 박람회에 참관 한 내용 등을 당시 Boston Morning Journal(September 20, 1883)을 인용, 과학기술의 교류측면에서 살피면서 국내에 상세히 알린 논문이 있다. 변종화, 1982, 「1883년의 한국사절단의 보스톤방문과 한미 과학기술 교류의 발단」, 『한국과학사학회지』 제4권.

두 번째로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미국 공사관 알렌(Horace N.Allen)의 외교적 수완에 힘입어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그 내용이 기록과 유물로 명확히 파악되는 예이다.[14]

이 때 조선관(朝鮮館)을 한옥으로 건축하고 그 안에 태극선·발·화문석·가마·천장·짚신·병풍·나전, 그리고 각종 복식 등을 전시 판매하면서 궁중 아악(雅樂)을 6개월 간 연주하였다. 시카고에 건너가 박람회를 마친 각종 민속품 일부는 오늘날 시카고 힐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 및 보관되어 있다.

세 번째로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도 다양한 민속품이 출품되어 유럽에 조선을 알리고 이후 기메 동양박물관에 전해져 현재 한국실에 전시되는 계기가 된 것이 있다. 당시 외교관이던 콜렝 드 플랑슈(Collin de Planchy), 서지학자로 널리 알려진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지원으로 한국관이 설립되면서 조선의 여러 민속품이 프랑스에 알려진 것이다.[15] 이 때 출품된 민속품은 비단·놋그릇·나전장식장·도자기·신발류·비녀 등 각종 보석 및 복식 등으로, 이들 품목은 모두 모리스 꾸랑 등의 글에 담겨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현지 조사시에 이들 유물들을 고스란히 확인한 바 있다.

Ⅲ. 한국문화재 소장 주요 국가의 현황과 그 특색

1. 미국 소재 한국문화재

현재 미국은 앞의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20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현재 16,9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수집된 한국문화재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의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지역의 주요박물관인 보스턴 박물관을 비롯하여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브루클린박물관, 필라델피아박물관 등 한국실이 설치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16]

---

14) 김영나, 2000, 「박람회라는 전시공간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3』.

15) 당시 한국관의 전시내용은 조선에서 보내온 것과 콜렝 드 플랑슈와가 입대한 작품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그 정황에 대해서는 Pierre Cambon 프랑스 기메박물관 큐레이터의 관련 글에 전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6) 미국 내 한국실이 설치된 주요박물관과 한국유물에 대해서는 미국 동부에서 활동 중인 우현수 큐레이터가 1998년 『월간미술』「미국 속의 한국박물관」에 시리즈물로 소개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높은 감식안을 지닌 부호의 완상용(玩賞用)으로 혹은 개인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자들에 의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 미국 동부에 우리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흘러들었다. 미국에 상륙한 이들 문화재는 소유자 생존시 혹은 사후에 기증 또는 매입을 통해 공공기관에 들어갔는데, 오늘날 보스턴박물관을 비롯한 몇몇 미술관이 한국문화재를 소장·전시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지역의 주요 박물관·미술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유출경위와 소장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며, 보스턴박물관의 우리 문화재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스턴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소장 경위를 알아보는 것은 곧 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소장 경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1) 보스턴박물관 한국문화재 소장경위

보스턴박물관<사진 2>은 현재 50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박물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아시아부는 10만여 점의 아시아 미술컬렉션 속에 우리의 한국문화재도 일찍부터 포함되어 왔고, 별도의 한국실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한국문화재가 상설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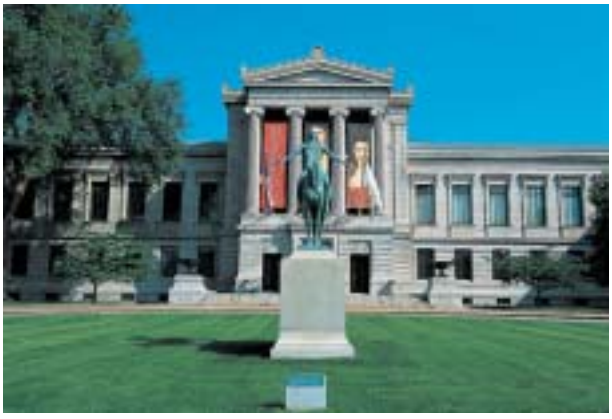

사진 2. 한국문화재 대표전시 박물관인 미국 보스톤박물관 전경

보스턴박물관에서 우리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살핀 19세기 말~20세기 초 열풍처럼 불어든 자본주의의 팽배에 의해 부를 축척한 개인들이 동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지역의 학자들과 상인들의 동양권 여행을 통한 수집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사람으로는 한국유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이다.

동물학자인 모스는 1877년 해양 완족류(腕足類)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간 이후 동양자기(瓷器)에 매혹되어 모두 3회를 방문한 일본 여행을 통해 6,000여 점을 수집하였다. 이들 유물 속에는 일본유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조선유물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과 중국과 판연히 다르면서도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선 미술품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일본인

친구로부터 일본 도자기에 영향을 준 것이 조선도자기라는 조언을 듣고, 우리의 문물에 대하여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1883년 일본에서의 귀국길에 상해에 들러서 당시 조선왕실의 재정고문으로 있던 독일인 공사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 1848~1901)를 만나 유물 구입 목록과 경비를 주면서 매입을 부탁하는 등 매우 적극적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당시 이렇게 수집된 유물은 피바디 에섹스박물관과 모스 개인이 소장하였는데 모스는 1892년 3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본 및 조선 유물 5,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스턴박물관에 매각하였다. 이 소장품의 대부분은 일본 도자기이지만, 우리의 토기와 도자기 다수가 포함되었다. 때문에 이 모스컬렉션으로 인해 보스턴박물관에 비로소 한국의 토기와 도자기가 선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한국미술품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보스턴박물관은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이 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보스턴박물관 재직 큐레이터들의 활약으로 한국미술 컬렉션을 꾸준히 확장해 갔다. 특히 1900년대 초반 일본의 미술사학자로서 동경미술학교 교장이었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2~1913)은 한국미술품의 기증을 장려하고, 한국도자기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청동거울과 상감청자합 등을 구입하는 등 한국미술 확보에 남달리 강한 애정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스컬렉션 이후 한국미술컬렉션이 더욱 강화되었다.

1911년 보스턴박물관은 상임위원이자 일본문화전문가인 비겔로우(Bigelow)의 컬렉션을 기증받았다. 그는 유명한 일본미술 수집가였고 그가 일본으로부터 구입하여 기증한 수 만 점 중에는 한국문화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비겔로우 컬렉션은 1880년대에 수집한 불교회화 · 수묵화 · 금속공예 · 나전칠기와 같은 뛰어난 한국미술품들이었다. 또한 보스턴박물관은 1919년 헨리 아담스로부터 조선전기인 15세기 약사여래도를 기증 받는 등 여러 개인 소장자에게 훌륭한 작품을 기증받아 한국유물 수량을 더해 갔다.

또한 다른 한국유물 후원자인 찰스 베인 호이트(Charles Bain Hoyt, 1889~1949)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하버드대학의 포그미술관 명예큐레이터로 근무하였으며 한국미술에 대한 독특한 미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호이트는 우리나라에 오지는 못했지만, 191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본과 파리를 방문하면서 양질의 고려청자 등 많은 우리 작품을 구입하여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고려청자 컬렉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수집한 중국과 한국도자기 컬렉션을 1949년 보스턴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최고 수준이었다. 그가 보스턴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은 청자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토기, 고려시대 동경 및 금속공예품 그리고 조선시대 도자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도 보스턴박물관은 1970년대에는 박물관 후원자들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

유물을 구입하는 등 꾸준히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였고, 1980년대 얀 폰테인(Jan Fontein) 관장 재직시 한국실이 개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보스턴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특징

보스턴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고고·미술·민속 등 총 720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보스턴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현황

구분	세 분 류		선사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시대미상	계
고고	선사유물	14점	14							173
	토 기 류	68점		52	15				1	
	와 전 류	16점			16					
	장 신 구	54점	2	50					2	
	기 타	21점		19	2					
미술	서 화 류	42점				3	31	8		539
	조 각	10점		2	4	2			2	
	도자	청 자 196점				196				
		분청자 25점					25			
		백 자 72점				4	43	25		
		기 타 31점				14		16	1	
	금 속	150점			3	123	3	2	19	
	목공예	13점				2	9	2		
민 속		8점					8			8
합 계			16	123	40	344	119	53	25	720

720점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술품은 539점으로 전체 유물수량 중 75%를 나타내고 있어 고고유물과 민속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특히 미술품은 서화류·불교조각·도자기·금속공예품·목공예품으로 분류하고, 도자기는 다시 청자·분청자·백자 등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시기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유물이 전체 48%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유물이 강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고려유물의 제작시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도자·금속·나전 등 공예품은 고려장인의 솜씨가 최전성기를 구가하여 실력을 크게 발휘하던 12세기~13세기 작품들이어서 그 질에 있어 탁월하다<사진 3>.

사진 3. 은제주자(銀製注子, 12세기)

사진 4. 나전국화문경함(螺鈿菊花紋經函, 13세기)

먼저 고고유물을 살펴보면 마제석검 및 석촉, 동검 등 선사시대 무기류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 막새 · 마구(馬具) · 장신구 · 청동제 그릇 등이 있다.

장신구는 삼국시대의 금제이식(金製耳飾)과 은제금구(銀製金具) 그리고 옥과 유리로 제작된 각종 목걸이 등으로 이들은 당시 장인(匠人)들에 의해 재질적 특성을 잘 살린 섬세한 세공기술로 인해 아름다운 형태와 색을 오늘날에도 지니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다.

서화는 고려 및 조선시대의 불교회화와 조선시대 일반회화 그리고 서예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불교회화로, 금니(金泥)를 사용하여 제작한 13세기의 『원각경 변상도(圓覺經 變相圖)』는 화려하고 정교하면서도 품위 있는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전기 제작의 『약사십이신장도(藥師十二神將圖)』와 『수월관음보살도(水月觀音菩薩圖)』는 작품에 쓰여 있는 화기(畫記)로 보아 왕실의 주문으로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으로서 인물들의 온화한 얼굴표정과 세밀하게 표현된 문양 등 조선전기 불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일반회화에는 산수화와 화조화(花鳥畵), 괴석도(怪石圖) 그리고 화려하게 채색된 책가도(冊架圖)와 가응도(架鷹圖) 등이 있다.

한편 불교조각품 중 8세기에 제작된 금동 약사여래입상은 균형 잡힌 신체비례와 적절한 볼륨감을 갖추고 있어 통일신라 미술 전성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핀 대로 보스턴박물관 한국미술 컬렉션 가운데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고려공예품이며 이들 공예품 중에 도자기가 절대적이나, 소수의 금속공예와 나전칠기 역시 수준작이다.

고려청자는 11세기의 초기청자부터 13세기 상감청자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이른바 비색

청자(琵色靑磁)와 상감청자(象嵌靑磁)로, 당시 최고급 소성방법인 규석받침 번조(燔造)가 많아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형과 장식기법 및 문양 등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속공예품에는 청동병과 같은 생활용품과 정병 · 금강령(金剛鈴)과 같은 불교의식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제 도금라마탑형 사리구는 여말선초의 고승 지공(指空)과 나옹(懶翁)의 법명이 새겨져 있어 이 시기의 사리장엄 양식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승반(承盤)과 세트를 이루는 은제 도금주자는 고려 금속공예의 백미로써 조형미와 제작방법 등이 매우 뛰어나 우수한 고려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사진 3〉. 칠기류 중 나전국당초문경함〈사진 4〉과 나전국당초문화형합은 형태의 조형미와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장식으로 인해 당시 고려 귀족문화의 일면을 충분히 보여주는 수작들이다.

백자는 16세기 백자상감연화문완과 18세기 백자달항아리와 같이 뛰어난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가구와 목공예품 역시 궁중용품으로 보이는 우수한 제품의 용머리 표주박 등이 있다. 고고 · 미술 · 민속품 자료 이외에 관계사진 및 탁본 자료 144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사진자료는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던 1883년 서울을 방문한 미국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에 의해서 촬영된 기록 사진이어서 주목되고 있었다.[17]

2.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는 현재 외국 소재 20개국 주요 국가 중에서도 〈표 1〉에 의하면 가장 많은 35,000여 점이 기관 및 개인 등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45%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18]

대부분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강점기와 그 시기를 전후하여 관민 그리고 관련학자들이 조직적으로 대량 약탈하여 반출해 갔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는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또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미국, 프랑스 등 제3세계로 팔려가 소재국을 달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후지시마 가이치로(藤島亥治郎)

17) 자세한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 간행한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에 사진과 함께 유물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 이 수치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2년부터 일본 주요박물관 및 미술관, 개인 등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기타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발표한 2005년도 국감(國監)자료에 근거한 것이나, 일본의 경우는 다른 자료(이홍직, 1964, 「재일 한국문화재 비망록」, 『사학연구』18집)를 통해 그 수량이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과 같은 관련 고고·건축학자들이 대거 조선에 건너와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고적조사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 등을 1910년 발굴 조사하였고 당시 출토유물 일체를 모교인 동경대학교 건축실에 반출하여 학술조사라는 미명 아래 우리 문화재를 고스란히 본국에 가져간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한편,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는 1966년 한일회담 당시 양국 정부차원의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현재 민간차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보다도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보고서, 여행기, 언론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적인 환수대상이 되어 국내에 돌아온 사례도 많다.

1966년 한일회담 시 양국의 정치현안으로 채택되어 한일협약문화협력[19] 협정조약에 의해 국가 소유 문화재 370건 1,432점을 반환받기도 하였다.[20]

이후 국가기관과 민간차원 그리고 학자 간 교류를 통해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는 학술적 전시 및 연구대상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환수문제로 인해 늘 세간의 주목대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경주박물관 등에서는 끊임없는 학술교류 전시를 통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를 학문적 접근대상으로서 1992년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북구주(北九州)시립박물관 소장 와전(瓦塼) 등 관련자료를 정리한 책자 4종을 출판한 바 있었다.[21]

최근 북관대첩비 반환과 과거 데라우치(寺內) 문고 반환 등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크고 작은 환수가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언론 보도자료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언론보도 예로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망까지 일본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한 사실을 중심으로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정치·문화적 환경과 양국의 관계자 의견 등의 종합적 내용을 2002년 도널드 매킨타이어(Donald Macintyre)가 "A LEGACY LOST"(잃어버린 유산)라는 제목으로 『TIME』에 실어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22]

---

19) 1966년 12월 18일 「한일협약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181호 제2조」에 의거 한국 측의 3,264점 문화재 반환 요청에 대해 일본은 370건 1,432점만을 반환, 만족스럽지는 못한 유물수량이나 역사상 국가 간 협상에 의한 최초의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20) 문화재청 집계자료에 의하면 이후 기증과 구입 등으로 2006년 현재까지 야스쿠니신사 북관대첩비 등 총 3,914점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자료집 성격의 『小川敬吉조사자료』와 도록해설집인 『日本所在文化財圖錄』 및 『日本所在韓國佛畵圖錄-京都·奈良』,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등 4종을 각각 간행하였다.

22) Donald Macintyre는 '잃어버린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반출된 문화재가 동경국립박물관 등 공공기관 및 개인정원에 전시, 활용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정부기관 등에서 환수 및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과 일본인의 그릇된 가치관을 함께 지적하였다.

이렇게 잘 알려진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가운데 1920년을 전후하여 대구 지역의 신라 및 가야고분에서 도굴한 각종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간 오쿠라 타케노스케라(小倉武之助) 소장 한국문화재를 통해 일본 지역의 한국문화재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도쿄국립박물관 한국문화재의 소장 경위

도쿄국립박물관은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내 최고·최대의 박물관이다. 1872년 문부성박물관(文部省博物館)으로 개관하여 1882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동경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 등으로 개칭한 뒤 1952년 지금처럼 동경국립박물관이 되었다. 일본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각종 유물을 비롯하여,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 유럽, 이집트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유물이 약 9만여 점 정도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한국유물은 국내와 일본 내의 한국 관련 특별전에 자주 대여 전시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주요유물에 대한 비중이 높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한국문화재 애호가와 관련연구자 등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이 같은 배경 아래 동경국립박물관측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술조사 사업과 연계되어 오쿠라컬렉션에 한정된 조사를 1999년 12월 5일 현지에서 조사협의와 함께 실제조사를 고고유물부터 착수하게 되어[24] 2002년 11월까지 민속품에 이르는 1,030여 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오쿠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는 일찍이 대구에 대흥전기, 남선합동전기라는 당시 조선 최대의 전기회사를 설립한 후,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1922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을 수집하여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유출시킨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후 오쿠라는 수집한 유물 보존을 위해 치바현(千葉縣) 나라시노바(習志野市) 미모미(實籾)에 있던 자택에 수장고를 만들고 1958년 '오쿠라컬렉션 보존회'란 재단을 설립하였다. 그의 사후 재단은 아들 야스유키(安之)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으며 동 박물관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가 현재는 일본 최고의 박물관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공공장소에 버젓이 전시되어 일반인과 관련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23) 동경국립박물관의 전시실을 찾는 외국인 가운데는 한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며, 외국어 안내서 중 한국어 안내서는 영어 안내서보다 많은 수가 배포되고 있다고 한다. 동경국립박물관의 한국유물 수량 및 한국실 운영 등에 대한 여러 정보에 대해서는 동 박물관의 시라이(白井 Katsuya) 큐레이터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00년 7월에 간행한 뉴스레터지 『해외박물관』 8권 4호에 게재하였다.

24)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趙由典소장과 도쿄국립박물관 아베(阿部兖夫)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 학술조사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기본윤곽은 충분히 언급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추진되었다.

(2)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특징

도쿄국립박물관의 한국문화재는 현재 약 4,800여 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고유물이 2,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회화 · 서예 · 조각 · 금속공예 · 도자기 · 칠공예 · 염직 · 민속자료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소장되어 있다. 한국문화재는 동양관의 가장 위층인 3층 한국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그 중 고고유물은 오쿠라컬렉션 중심으로 전시되고 있어 동 박물관의 대표적인 한국유물 소장품임을 알 수 있다.

오쿠라컬렉션은 1,030여 점에 달하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낙랑유물을 포함하여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전시기에 걸친 고고 · 회화 · 조각 · 공예 · 전적 · 복식류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유물을 망라하고 있다.

고고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557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남 창녕 출토로 알려진 삼국시대 5~6세기 금동투조관식은 국내에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관모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7점이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31점이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되는 등 모두 39점의 유물이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로 개인 수집품의 가치로서는 최고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490여 점의 미술공예품 가운데에는 불교 공예품이 단연 으뜸으로 탑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舍利莊嚴) 및 의식용 법구(法具)인 범종과 금강저(金剛杵) · 금강령(金剛鈴), 경주 남산 출토 불상 등이 뛰어나다. 이들은 금동 · 청동 · 은제 · 석제 · 토제 · 유리제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시기 역시 통일신라 사리기로부터 절대년도가 표기된 고려범종 그리고 조선 초의 사리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 금동원통형사리합(金銅圓筒形舍利盒)은 표면에 99기의 소탑(小塔)이 시문 장식되어 [무구정광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에 의한 조탑 공양사상(造塔 供養思想)의 사리신앙이 반영된 예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또한 은제보탑(銀製寶塔) 및 난형사리기(卵形舍利器)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와 유사하여 통일신라 8~9세기의 불교 최성기 공예품양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25]

3. 러시아 소재 한국문화재

러시아는 다른 서양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접경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남진 정책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 간행한 『오쿠라 켈렉션 한국문화재』 도록에 사진과 함께 유물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등 과거 역사적 관계가 많았지만, 1950년대부터 남북분단과 함께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고 1990년 한·러 수교로 문화재 분야의 학술교류가 시작됨에 따라 러시아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곧 학술조사로 연계되었다. 러시아는 일본·미국·영국·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1,600여 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한 국가로 사회주의란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문화재 대부분이 공공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소장처로는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과 페테스부르그에 있는 일명 표트르대제 박물관 등이 있다.

이들의 소장배경은 일찍이 중국 청나라를 통해 입수된 소수의 우리 유물 일부와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통상조약 체결 이래 최근까지 조선을 다녀간 러시아 외교관과 학자 혹은 여행가들에 의해 수집된 문화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85~1896년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와 군인 등 엘리트로 결성된 조선탐험대를 중부와 북부에 파견하여 지리·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실로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는데,[26] 이들에 의한 각종 정보는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 러시아 원정대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조선의 미술품과 민속품을 수집하여 귀국과 함께 러시아로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여행기 등의 기록 그리고 각종 생활용구·의복·악기·놀이도구 등 오늘날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로 미루어 러시아 원정대의 조선 유물 수집 목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매우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음은 이 무렵 탐험가들이 남겨둔 여행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 원정대가 조선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대외통상협회 등에서는 따롄시(大連市)와 만주와 같은 국경지역에서 일본인이 소장하던 한국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만주를 둘러싸고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각축을 벌이던 당시 상황에서 러시아 장교에 의해 수집된 기산(箕山) 풍속화 등이 그런 세계사의 소산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무렵 어수선한 사회를 반영하듯 소비에트공화국 창고로 흘러든 한·중·일 유물들 중에는 그 수집경위를 알 수 없는 것도 많다.

또한 1976년 학술연구 대상으로 모스크바 동양박물관은 한국유물을 직접 수집하기 위해 자체 원정대를 조직하여 사할린 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속의상, 장신구, 가구제품 등을 구입하거나 그들로부터 기증 받아 민속품을 확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만의 독특한 우리 문화재 소장 경위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의 정치·문화적

26) 여기에 대한 관련서로는 카르네프 외 4인 지음·A. 이르게바예프·김정화 옮김, 2003, 『러시아 장교 조선 여행기,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등이 있다.

관계가 매우 빈번했던 1953년~1960년대 북한에서 받은 기증품 및 선물 속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가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한국유물을 소장하게 되는 시기인데, 1950년대 북한과의 정치·문화적 관계가 활발하게 형성된 기간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선물한 청자상감과형 주전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한 소련장교와 대표단들이 선물 받은 고구려 수막새, 고려청자 및 청동거울, 조선시대의 회화·백자·장신구·복식 등 훌륭한 고미술품과 함께 현대 수공예품 및 의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술품이 집중적으로 국립동양박물관에 직접 전달되었다.[27]

따라서 이 때의 유물은 수집경위 등이 매우 뚜렷한 상태로 페테르부르그 소재 러시아과학원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과 모스크바 소재의 국립동양박물관에 다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전자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한국문화재 소장 경위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중심가 네바강변에는 러시아 최초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자 세계인 민족학박물관 중 하나인 러시아과학원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Peter the Great Museum of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일명 '쿤스트카메라'(KUNSTKAMER)가 있다.

이 박물관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4대 황제인 표트르대제(1672~1725)의 명령으로 1714년 건축가 마따르노비가 건립하였는데, 황제가 유럽 등에서 희귀물건을 수집하여 이곳에 두면서 박물관의 모태가 되었다. 1879년 10월에는 고고민족박물관으로 발족했으며, 1903년에는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으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종 진귀한 유물들이 모여서 출발하였고, 오늘날에는 한국문화재 외에 중국·일본·몽고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이 수장·전시되어 있는 3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러시아의 대표적 박물관의 하나이다.

이 박물관은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과 더불어 러시아지역에서 한국문화재의 주요 소장처로서 독립된 한국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국문화재의 수량과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트르대제 박물관이 자리한 상트 페테르부르그는 오늘날에는 모스크바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이지만, 조선과 러시아 간 외교관계가 아주 빈번했던 19세기 말~20세기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수도(1712~1918년)로서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각종 정치 외교의 산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유물들이 자연스레 이 지역에

27) 이들 유물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크레믈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해당 박물관으로 전달되는데 대부분 1950년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기증 받은 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여들게 되었고, 그 소장처는 표트르대제박물관이 되었다. 우리와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던 17~18세기부터 비롯되었으며,[28] 이 때 우리 유물도 전래되었다. 그러한 단서가 되는 유물로는 18세기 조선 편지지(片紙紙)가 있다.

러시아와 공식적 외교관계가 수립된 19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고려청자 등 각종 우리 문화재가 유입되었으며, 좀 더 정확한 시기는 1884년 조·러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초대 공사로 카를 이바노비치 웨베르(Weaber, Karl Ivanovich)[29]가 조선에 부임하면서부터이다. 1890년 서울에 러시아공관이 세워지고 정치적으로 조선 내 친러 세력이 형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다.

표트르대제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청동정병과 각종 청자들은 당시 이 박물관의 유물관리인 루소프 데르프트가 당시 조선에서 확고한 기반을 지니고 있어서 유물 구입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던 러시아 영사 카를 이바노비치 웨베르에게 경비를 지불하여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1895년 친일세력을 축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명성황후와 이범진·이완용 등 친러파의 지지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는 1896년 웨베르가 있는 현 서울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함으로써 러시아는 조선의 내정은 물론 외교에 있어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때 러시아는 정부 각 부에 러시아인 고문과 사관(士官)을 초빙 배치토록 하고 러시아제 무기 판매, 러시아식 군제 개편 등을 단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여러 서구열강보다 확고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러시아에 전해진 우리 문화재 가운데 명성황후가 웨베르에게 선물한 청자완(靑瓷碗)이 있다. 이 청자는 지장(紙裝)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유물은 당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19세기 조선 왕실 주변에서 웨베르가 수집한 우리문화재는 러시아 원정대가 수집한 민속품과는 달리 품격과 학술적·미술적 가치가 높다〈사진 5〉.

또한 웨베르의 도움으로 러시아인 의사 야쭈뜨가 수집했다는 다수의 한약재는 다른 해외박물관의 소장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이들 한약재의 봉투에는 처방전(處方箋)의

28) 일찍이 표트르대제의 명으로 1791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북경 주재 통상대표로 파견된 로렌츠 랑은 1722년 2월말 조선사절단과의 접촉 내용을 일기로 남긴 바 있다. 표트르대제 박물관의 이리나 수슬로바는 이 때 조선의 유물이 러시아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양국의 문화접촉 내용은 박종수, 2001, 『러시아와 한국, 잃어버린 백년의 기억을 찾아서』, 백의, p.87를 참고할 수 있다.

29) 웨베르의 한국 이름은 '위패(韋貝)'로, 표트르대제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가운데 1885년 고종의 명으로 이재원이 웨베르와 러시아 함대 함장 및 사관들을 고종의 편전(便殿)으로 초대하는 문서 가운데 그의 한국 이름이 적힌 것이 있다.

내용이 한자와 러시아어로 꼼꼼히 적혀있어 이전부터 전해져오는 한방의학과 현재의 한방의학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5. 명성황후가 웨베르에 준 청자대접 및 지장상자

이 같은 개인 기증품 외에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유물들의 이관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대학 동방학부 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유물이 표트르대제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현재 소장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등 당시의 수집품은 매우 복합적이었으나, 1937년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뀨네르에 의해 비로소 한국유물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50년 모스크바 동방박물관에서 이관된 유물의 대부분도 1884~1904년 사이에 수집된 것으로 총 400여 점에 이르는데, 대부분 루께프스끼 박물관의 민족실에 있었던 것들이다. 여기에는 청동그릇을 비롯하여 남성복·여성복·아동복·상복·군복과 한국에서 썼던 여러 옷감류, 그리고 농기구 등 민속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 외에 소비에트 민족박물관에서 이관된 수집품 가운데 하나인 여성 의류, 1930년 프룬제 기념 해군사관학교로부터 기증받은 갓·옷·부채 등도 있다.

표트르대제 박물관의 우리문화재의 마지막 수집단계는 1950년대 이후 북한과의 교류와 기증에 의한 것들이다.

1957년 북한 문화부로부터 470여 점 이상의 유물들을 기증받았으며, 이 중에는 본 도록에 수록된 삼층장·나전칠기·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중국과학원 소수민족연구소,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그리고 개인에 의한 기증도 많아서 웨흐라모프 및 한국인 김원령 등으로부터의 기증품도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국교수교 이후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대미술품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2)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한국문화재 특성

표트르대제 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는 미술품과 민속품이 주류를 이루며 총 633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자료 중에는 도자공예품과 금속공예품이 중심을 이루며, 이 외에 유물들은 민속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속품은 의생활용품, 식생활용품, 주생활용품 등 다양한 성격의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옛 생활모습과 전통문화를 한 눈에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들로 평가된다.

미술자료는 서예 · 조각 · 도자류 · 금속공예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예는 2점으로 모두 조선 말기의 서예가인 권동수(權東壽)(1842~?)의 전서(篆書)작품이다. 대전(大篆) 중에서도 갑골에 가까운 서체로서 권동수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도자는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중국 송대 백자로 구분된다.

고려청자 중에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는 접시 등이 보이고, 백자는 고려시대 초기의 용인서리, 시흥 방산동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 양식을 보이고 있는 대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백자류는 병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밖에 잔 · 완 · 대접 · 항아리 · 접시 등 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백자청화불수감문주자(白瓷靑畵佛手柑文注子)는 그 명칭처럼 독특한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유행하는 문양 중 하나로, 매우 시원스럽고 활달한 표현을 엿볼 수 있다.

금속공예품은 고려시대의 청동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기종별로는 정병과 향완 · 발 · 접시 등의 용기와 청동수저 · 팔릉경의 동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경 중에는 조선시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민속자료는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구류는 대부분 나전칠기로서 전통적인 기법에 의한 제작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는 195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작되어 문화부를 통해 기증된 유물들도 있는데, 삼층농 · 나전칠기의자 등이 해당한다. 전통적인 나전칠기 기법에 비해 도식화되고 쇠락한 느낌을 주나,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민속공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지장나전서랍이나 주칠빗접은 나전으로 장식하였는데,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마련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 없다. 이 중에는 당시 왕실과 상류층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은 품격과 격조를 지닌 유물들도 볼 수 있다. 매우 아름다운 형태의 지장상자는 왕실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유물이다. 이것은 명성황후가 웨베르 공사에게 청자완을 담아서 선물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서, 나무로 상자를 짜서 주홍색 종이를 바르고 전면에 당채로 문양을 배치하였는데, 품격과 아름다움에서 당시 왕실에서 사용된 최상품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등구류 중에는 왕실 사용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있는데, 금동연봉봉황장식철제은입사촛대는 우아한 형태와 화려한 금 · 은입사 장식으로 미루어 왕실 등 상류층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유물이다. 금동봉황장식과 은입사한 용 · 궤등경 등은 장식이나

재료, 제작기법 등에서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인 만큼 일반적인 촛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웨베르의 수집품으로 나중에 표트르대제 박물관에 기증된 것인데, 명성황후와 관련된 왕실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웨베르의 수집품인 각종 부채(까치선 · 태극선 · 홍대선 · 칠선 · 미선 등)는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미루어 단오 등 명절에 이용되었던 것들로 보이는데, 역시 왕실에서 사용했거나 하사한 물품으로 보인다.

민속유물 중 기타유물들에는 농기구, 한약재, 무기류, 놀이기구, 화폐, 악기 등이 전하고 있다. 한약재는 한국유물들 가운데 매우 귀중한 수집품으로 간주된다. 한약재는 처방별로 40종이 넘는 처방전과 해당 약재들이 함께 고스란히 전하고 있어, 당시 한방의학에서 행하여졌던 실제적인 처방 예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처방전과 비교연구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무엇보다도 19세기의 것으로 중요한 내용의 편지가 전하고 있는데, 웨베르 공사를 고종이 초청한다는 내용이 적힌 초청장으로, 당시 조선왕실과 웨베르와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며, 당시 초청장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 궁궐의 일등 상궁이 러시아부인에게 보낸 서안문도 전한다.[30]

Ⅳ.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방안

지금까지 외국으로 건너간 한국문화재 가운데 미국 보스턴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러시아 표트르대제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그 소장경위 및 배경, 유물의 전체적인 성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차적으로 문화재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적교류의 산물로서 타 분야에 있어도 학술적인 정보를 풍부히 전해줌으로써 분야별 학문적인 활용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일 것이다.

그 예로 보스턴박물관의 흑백사진자료와 표트르대제 박물관의 웨베르 소장품을 들 수 있겠다.

보스턴박물관의 사진자료는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던 1883년, 서울을 방문한 미국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에 의해서 촬영된 기록 사진이다. 그는 조용한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 간행한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도록에 사진과 함께 유물해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침의 나라(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의 저자이기도 하다. 당시 조선왕실과 서울주둔 외국공관, 그리고 독일공사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 1848~1901)의 자택 풍경사진과 고종황제를 촬영한 어진(御眞) 등 그가 소장한 60장의 사진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세계열강의 국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대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사진 6〉.

사진 6. 고종(高宗), 창덕궁 농수정(濃繡亭),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촬영

또한 표트르대제 박물관 한국문화재 소장품은 웨베르와 명성황후 사이의 관련 왕실물품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 이외에 구한말 긴박했던 우리와 러시아 사이의 교류관계를 반영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학문적 접근자료로서의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표트르대제 박물관이 위치한 상트 페테르부르그는 러시아에서만 의미 있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재와 함께 근대 외교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1897년 고종의 특사로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한 민영환이 머문 곳이 이 도시이고, 또한 당시 몇 안 되는 조선의 재외 공관 중 하나인 러시아 주재 공관이 1900년에 들어선 곳도 이곳이다. 또한 이범진 공사 등 공관원이 러 · 일전쟁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국제적 활동을 펼친 곳으로 동 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당시의 군수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소재 한국문화재는 한·러 관계의 많은 역사적 기록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내포하는 증거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학문적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활용차원의 접근을 근간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다.

현지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유출경위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환수하는 방안의 이중적 잣대로 해외소재문화재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한국문화재 대부분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어수선한 정세를 틈타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이나 혹은 미국으로 유출되어 지역의 학자와 애호가들 손에 구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약탈된 우리 문화재라 할지라도 그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의 오쿠라컬렉션은 오쿠라 개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땅에서 명백한 도굴을 통해 수집·반출해나간 한국문화재인데, 그의 사후 일본 최고의 공공박물관에 기증되어 일본의 대표문화재로 지정되고 한국실에 전시 중인 현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즉, 동경국립박물관의 오쿠라 콜렉션의 한국문화재를 홍보대상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환수대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미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에 소재한 한국문화재라 할지라도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소장의 총통(銃筒)처럼 1871년 신미양요로 인한 전리품으로 노획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고서와 같이 명백히 약탈 우리 문화재로써 앞서 살핀 보스턴박물관 유물과는 그 유출경위가 다르다. 따라서 그에 맞는 환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대부분은 보스턴박물관과 같은 예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대부분의 미국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며, 보스턴박물관의 우리 문화재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스턴박물관의 우리 문화재 소장 경위를 알아보는 것은 곧 미국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문화재에 대한 소장 경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반면에 미국의 피바디 박물관장 모스의 경우처럼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묄렌도르프에게 부탁하여 생활유물 등을 직접 구입한 예가 있었다. 러시아의 표트르대제박물관 유물관리자인 루소프 데르프트가 러시아 영사 웨베르에게 경비를 지불하여 고려시대 각종 유물을 구입해 갔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데, 이것은 그 유출경위가 뚜렷한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듯이 병인양요 때 약탈된 프랑스 소장의 외규장각 도서로 인해 1990년대부터 우리 주변에 일고 있는 '해외문화재는 모두 환수대상' 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보스턴박물관의 한국실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사실상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활용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스턴박물관과 같이 한국실이 설치된 미국 등 18개국 51개처의 주요박물관을 활용하여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1]〈사진 7〉.

사진 7. 보스톤박물관 한국실 전경

국내의 학술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해외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전시도록과 안내책자 등을 한·영 양국어 혹은 소장처의 언어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훼손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여 한국실 전시유물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학술조사와 병행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박물관의 한국실 안내 책자발간 지원 등을 통한 양국의 우호증진이 가장 근접한 사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박물관 한국실의 제반환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획한 영국박물관의 한국실 내 사랑방 건축의 성공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이왕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문화재 요소를 박물관 전시공간과 함께 십분 활용하여 우리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문화재는 그 특성상 원래의 생산국에서 국가 간 혹은 개인 간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전쟁, 식민지지배, 교역, 교환 기증 및 선물 등에 의해 쉼 없이 반출되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재를 생산하고 더욱이 지형학적으로

31) 한국실 운영과 활용에 대한 접근 역시 환수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개인과 관계기관에서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실 설치 및 큐레이터 워크숍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현재 18개국 51개처에 대한 통계 역시 외교통상부 동재단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많은 전란을 겪어 크고 작은 전쟁과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하면서 문화재 유출의 폐해로 인해 앞서 살핀 것처럼 20개국에 걸쳐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 유출 또는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관심과 연구에 따라서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간의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정책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문화자원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고고·미술·민속·기록적 가치가 풍부한 각종 문화유산 자료들은 학술정보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 학문적 가치 이외에 이들을 국가발전의 전략적인 요소로 활용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무엇보다도 국외 각국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재가치의 재평가와 그 유출배경을 살펴 환수대상과 홍보대상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출경로에 따라 현재 비록 미국의 공공장소에 전시된 우리 한국문화재라 할지라도 조선후기 대미관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식적 교류성립 이전, 신미양요 시 미군이 노획한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소장의 대포와 군기 등과 같은 전리품은 명백히 반환대상이다. 따라서 국가가 중장기 전략을 세워 학술적 조사와 함께 유네스코와 민간단체를 통해 꾸준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정책적으로 반환노력도 함께 힘을 기울일 일이다.

그러나 시카코 휠드자연사 박물관 소장의 각종 민속품은 조선정부가 미국과의 조·미 수호조약 체결 후 세계만국박람회시 공식적으로 출품할 당시의 특산물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문화교류의 산물로 미국에 보내진 것으로 오늘날로 동일 선상에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매체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일본·유럽 등 지역 주요 박물관·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를 더욱 확대하면서 소장처의 소장경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떠나간 유출경위를 역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급박하게 전개된 정치·외교사적 자료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문화재 이동과 관계된 인적·물적 교류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적 토양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유출경위 및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규명하는 일은 해당 유물들의 가치를 파악하는 미술사적 연구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폭넓은 학문적 연계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접근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이홍직, 1964,「재일 한국문화재 비망록」,『사학연구』18집

변종화, 1982,「1883년의 한국사절단의 보스톤방문과 한미 과학기술 교류의 발단」,『한국과학사학회지』제4권

Leifer, Walter, 1983,『묄렌도르프 P. G. von Mollendorff』, 정민사

Siebold, Philipp Franz, 1987,『시볼트의 朝鮮見聞記』, 博英社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일보사,1994,『유길준과 개화기의 꿈』

이구열, 1996,『한국 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우현수, 1998,「미국 속의 한국박물관」,『월간미술』

국립문화재연구소,1999,『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Genthe, Siegfried, 1999,『겐테의 한국기행』,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Sands, William, 1999,『조선비망록』, 집문당

Lillias H. Underwood, M.D, 1999,『상투의 나라』, 집문당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나, 2000,「박람회라는 전시공간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13

Bishop, Isabella B., 2000,『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Ducrocq, Georges, 2001,『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눈빛

Lowell, Percival, 2001,『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Varat, Charles, 2001,『조선기행 : 백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이보아, 2002,『문화재약탈과 반환의 역사,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민영

김원모, 2002,『한미외교관계 100년사』, 철학과 현실사

김정화 역, 2003,『내가 본 조선, 조선인 : 러시아 장교 조선 여행기』,가야넷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부근, 2005,『잃어버린 우리문화재를 찾아』, 민속원

이난영, 2006,「미국소재 한국문화재 현황에 대하여(보스톤 미술관소장품을 중심으로)」,『상명사학 1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오구라 켈렉션 한국문화재』
김용구, 2006,『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Abstract

Use of Information Gained from Survey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Overseas
-Based on Collections of Overseas Museums

Lee Nan Young

Interest in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rising in recent years, not only on the part of existing researchers and scholars but also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scope of interest has expanded also, no longer being confined to Korea, and has given rise to movements for redemp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eserved overseas and plans on how to make use of information about them.

Aside from the basic idea that all cultural properties overseas are subjects for redemption,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time to seek ways to actively make use of information on those cultural properties, and that this must be preceded by clea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through systematic on-sit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y left the coun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ssue with a broader perspective. The cultural properties in question must be regarded not as the sole property of Korea, the country that produced them, but as artworks of the world wit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be protected and utilized by all human being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organize studies thekind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kept at three major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and traces the routes and methods by which

they were taken out of Korea.

Based on the perception of Korean artworks overseas as explained abo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aterials those cultural properties not only for academic research, but also todistinguish between those properties that should be redeemed and those that should be publicized overseas by clarifying how they were taken overseas, and thus provide basic materials for policy purposes.

keyword : korean Cultural Properties Collections of Overseas Museums, cultural properties preserved overseas, Ouststanding universal value, Museums of Fine Arts, Boston